

## 목숨걸고 전할 메시지

### 사도행전 20:7-16

7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8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9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11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래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13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14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15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1.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는 말씀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리조나에서는 이제 막 졸업 시즌을 마쳤고, 미국의 다른 지역들은 지금 한창 졸업 시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졸업식 축하(Commencement Speech)들이 이어집니다. 제가 알기로 ASU는 바로 인디애나 존스 그 자체인 해리슨 포드를 초청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스타이며, 역사상 가장 큰 영화배우 중 한 명입니다.저는 아직도 1997년 UC 버클리 졸업식과 당시 졸업 축사를 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그 역시 엄청난 스타였습니다. 바로 빌 코스비였습니다. 당시 그는 「코스비 쇼」가 몇 년 전에 막 종영한 후였고, 깨끗하고 가족 친화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코미디로 인해 ‘미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를 훨씬 더 충격적이고 악한 일로 기억합니다. 그는 데이트 강간의 대표적인 상징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빌 코스비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의 졸업 축사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판단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대학 졸업생들에게 졸업식 축사에서 연사가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저와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빌 코스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뒤에서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997년 UC 버클리 졸업생들에게 유익한 말들을 했고 좋은 조언을 주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나 유명인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씀들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몇 가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가 제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신앙 여정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상하고 독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무작위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어에는 의미가 있었고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가르침에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강해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이단적인 말입니까?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다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진리와 지혜의 원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보의 원천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십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메시지 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유두고라는 한 청년을 소개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가 성인 남성이라기보다 소년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21세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마도 십 대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주간의 첫날인 주일,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정말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정까지 계속 말했습니다! 성경은 방을 밝히기 위해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방은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턱에 앉아 있었고, 바울이 계속 말하는 동안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창문 밖으로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에서 떨어지면 그렇듯, 유두고도 죽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독특한 이야기를 두고 수많은 질문과 추측을 해왔습니다. 설교는 얼마나 길어야 하는가? 목사가 너무 오래 설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졸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설교를 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설교를 더 길게 해야 하나 생각 중이었습니다. 농담입니다!

설교 중에 졸면 죄인가? 저는 설교 중에 졸았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제 설교 중에 잠든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죄일까요? 유두고는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피곤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모두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누가가 이 독특한 일화를 사도행전에 포함시켰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신학자도, 심지어 우리가 신뢰하는 Gemini나 ChatGPT도 묻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자정까지 무엇을 이야기했기에 유두고가 잠이 들었을까?”

설령 유두고의 잘못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정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해 줄 말씀을 했을까요? 혹시 여성 목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을까요? 마침 남침례교는 여성 설교자 문제로 논쟁 중입니다. 혹시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을까요? 우리 이웃의 논란 많은 목사 마크 드리스콜도 부목사 문제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도 쓸모없는 것이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긴 설교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가장 중요했던 것은 메시지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메시지가 가장 중요했다면, 누가는 반드시 여기에 기록했을 것이고, 심지어 바울의 설교 내용을 담기 위해 한 장을 더 추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과 유두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실제 메시지보다 ‘함께 있어 주는 것(Presence)’이 더 중요합니다.

## 2.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는 실제 메시지보다 ‘함께 있어 주는 것(Presence)’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떤 말의 내용보다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Together) 성경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나 간증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의 시대가 시작된 장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고, 그 결과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2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교제'로 번역된 단어는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나누는 모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 이후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 강림 → 복음 선포 → 회심 → 코이노니아 공동체 형성

따라서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금하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함께 나누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제의 또 다른 핵심 요소와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씀씨가 아무리 뛰어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교사이며,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 요나 3:4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은 선지서인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지서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예언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이 한 문장뿐입니다. 게다가 이 예언은 거의 냉소적으로 들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마지못해 순종했던 선지자 중 한 명이 마지못해 전한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던 원수, 곧 앗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선지자들이 늘 하던 말,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곧바로 말합니다. “40일 후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 요나 3:7-8

“왕과 대신들의 조서로 공포하노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맛보지 말 것이며,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과 짐승이 다 굶은 벼룩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사람들은 이미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나가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적은 이미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나가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있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던 요나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것을 알고 있었던 요나조차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현장에 있고 싶지 않았던 요나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함께 있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유두고도 그 운명적인 주일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바울은 자정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자정까지 그렇게 길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특히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직장에 다녔거나, 혹은 그 자리에 있기 위해 일을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자정까지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그는 그렇게 오래 말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떠날 예정이었고, 떠나기 전에 형제자매들을 세워 주기 위해 많은 것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두고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 잠들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학교가 있었을 텐데, 그 시간까지 거기에 있었어야 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피곤함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현재의 순간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그 교제 속에 일어난 비극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순간에 함께하고자 했던 한 소년을 다시 살리십니다.

물론 이 기적에는 많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난 다른 사람들처럼, 유두고도 결국에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는 소생된 것입니다. 유두고의 소생은 장차 있을 부활의 예표이다, 등등... 신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수도 없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성령으로 총명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혼자 방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자연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규모로 역사하십니다.

서로 함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배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종종 성경에서 보았던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매우 자주, 중요한 것은 설교의 내용이나 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 있고,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자정까지 설교한다든지, 목사의 설교 중에 잠든다든지 하는 실수 같은 일을 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니느웨의 경우, 기적은 바로 앗수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비록 잠시였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친 한 소년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표적과 기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 기적과 표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기다리는 축복과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세워 줄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도 그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는 언제나 믿음으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영적 전쟁터에 존재할 때, 성령께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편안한 삶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복음을 위해 자정까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유두고처럼 피곤함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려 하겠습니까?

저는 주일에 절대로 자정까지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저는 **BVC**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는 **움직임(Movement)**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3.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는 **움직임(Movement)**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두고 사건 이후,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치유의 손길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기적은, 혹은 사도 요한이 부르는 표현대로

‘표적(Sign)’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이 사실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 요한복음 20:30-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에 매료되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갑니다. 곧 세상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리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즉,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곧바로 여행 일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매우 이상한 본문입니다. 사건들의 연결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유두고가 소생한 것은 분명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진 기쁨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움직임(Movement)’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강권하십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리에서 영적으로 깊은 자리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움직임은 종종 실제적인 행동의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움직이라고 재촉하시는 것을 느낀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설령 목사의 설교가 사도 바울처럼 길더라도, 설령 여러분이 유두고처럼 졸리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신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가 유두고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심지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까지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있기 위해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정은 종종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행 계획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선교의 괴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명령을 심어 주실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에게도, 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인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 중 가장 절차적(protocol-driven)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원수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드로아에 있으며 곧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자정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 유두고 역시 바울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자신의 피곤함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앞에 어떤 기회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 누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 기회가 성경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개관 공부를 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BVC 제자훈련인 「하나님을 경험하기(Experiencing God)」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할 성경통독과 묵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원수에게서 온 것인지 알게 됩니다.

셋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 줍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유튜브 설교를 보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함께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확인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는 삶을 조정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조정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순종입니다.

기도와 성경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작게 들릴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로마서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서 바울은 성적인 욕망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더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지 않으며, 거룩한 것을 피해 도망치기를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을 여러분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금요일 시간을 비우고, 과학캠프에서 봉사하고,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대가는 훨씬 더 큼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 욕망에는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그 불순종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의 재촉에 귀를 기울여 그분이 부르시는 곳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들으십시오. 더 이상 표적과 증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표적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교제 안에서 함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걸 만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단지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두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난 기적들과 앞으로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일어날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움직임이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움직여 가며, 그 자리에 함께 존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편안함을 선택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이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